

Magazine ART

세상이 아름다운 Magazine 月刊 매거진아트
www.wgart.com

Cover Story

영원한 평행선 “철길”을 통해 희망을 그리다

김지환



vol.112

AUGUST. 2014

8



▲ 회상전 전시전경

“동이켜 보면, 나는 늘 뭉치려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과거는 주어졌고 미래는 한없이 불확실하다. 결국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 홍승혜 -

2008년 국제갤러리 1관에서 선보인 개인전 《파편(Debris)》 이후 6년째 개인전으로서 최고적인 성격을 지닌다. '회상'이라는 전시 제목은 1997년부터 시작된 작가의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으로 출발한 일련의 대표작인 작업들과 당시 작가가 다루었던 주요한 접근 방식을 축적의 조각 및 발전, 영상 설치에 이르는 매체적인 특성에 따라 총체적으로 조형되어 마치 오래된 흑백영화처럼 무채색의 회상의 공간을 도모한다. 작가는 이 사자의 그리드를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 조합, 반복, 분해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총시시카며,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한다. 또한 논리적인 그리드의 조형적 안정감 속에 분절된 기하학으로서 불안한 질서와 불협화음을 놓아주기도 한다.

1층 전시장에는 작가의 과거 대표작들이 표기와 채료를 달리며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로 변주되고 있다. 1997년 초기 컴퓨터 드로잉에 기초한 실크스크린 작업들은 일곱몇 프레임으로, 2000년 사입어싱의 일루미네이션 작업은 실제 가구로 재현되는 등 전시장 곳곳에서 기존 작품의 이미지와 조형 방식을 참조한 《유기적 기하학》이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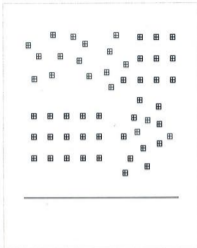
2층 전시장에는 지난 10년간 제작된 6편의 플렉시 아나베이션 《더 센티멘털 The Sentimental》시리즈를 흑백으로 전환해 현대 혹은 대규모 영상 설치 작업 《5성 리세로카레 Ricerare a 5》를 선보인다. 한자리에 모인 이 유적 비디오들은 서로 충돌하여 만든 불협화음을 만들지만 잠시 후 그 불협화음 속에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번 국제갤러리 개인전에 선보이는 '유기적 기하학'의 여러 변주들은 각자가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그리드가 되어 하나의 전시 안에서 위계 없이 재생, 복제, 총시되고 있다. 이는 각 작품이 구성요소가 되어 전시 자체가 기대하고 역동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며, 작가가 진행해 왔던 유기적 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조만영 수도권 휘파람



▲ Organic Geometry _ 40x40cm _ inkjet print _ black _ 2014



▲ Organic Geometry _ 40x40cm _ inkjet print _ white _ 2014



▲ 회상전 전시전경



▶ 회상전 전시전경